

수리중인 선박 외판 도장 작업 중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짐

< 재 해 개 요 >
2023. 1. 28.(토) 14:20경 부산 사하구 소재 000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(일명 '스카이')를 타고 수리중인 선박의 외판 도장작업 중 10m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치료 중 사망한 사고임

□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 : 떨어짐 / 사망 1명



【사고당시 사용 장비(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및 재해발생 위치)】

□ 재해발생대책

- 고소작업대의 작업대 출입문(안전난간 역할) 기능 정상작동 상시 유지
 - 고소작업대 작업 중 출입문(안전난간 역할)이 항시 닫힌 상태가 되도록 작업대 출입문은 자동적으로 닫히고 고정되거나, 닫힐 때 까지 고소작업대 작동이 불가하도록 상호 연동되는지 점검 후 작업에 사용
-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시 보호구(안전모·안전대) 착용 및 사용 철저
 -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안전모·안전대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 및 사용하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함
 - 근로자는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시 지급받은 안전모·안전대를 착용 및 사용해야 함

본 속보는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조선업재해예방센터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종 시설의 자체점검 및 적절한 조치실시, 근로자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 바랍니다.
인터넷 주소 www.kosha.or.kr/자료마당/재해사례/국내재해사례/조선업 클릭